



오늘의 날씨 | 구름많음 | 9°C/19°C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음력 9월 8일)

기독일보

석간



구독신청 02-722-8165

제 1151호

“명성교회 분립하라…몇 교회 중 하나를 김하나 목사 맡기를”

통합목회자연대, 명성교회 불법세습에 관한 ‘총회 결의 분석 세미나’ 개최

목회세습으로 9월 총회 이슈가 됐던 명성교회 문제가 최근 MBC PD수첩의 비자금 의혹 편 방영으로 다시금 이슈가 된 가운데, 15일 통합목회자연대 주최로 ‘명성교회 불법세습에 관한 총회 결의 분석 세미나’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세미나에서는 조건호 장로(변호사, 소망교회)와 임희국 교수(장신대 역사신학)가 각각 “총회 결의의 법리적 조망과 전망” “103회 총회의 역사신학적 의미”에 대해 발표한 가운데, 특별히 노치준 목사(광주양림교회)가 앞으로 명성교회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노치준 목사는 “제103회 총회 주요 결의와 그 의미”를 두고 발표했는데, 마지막 4가지 명성교회가 갈 수 있는 길을 이야-

기 했다. 먼저는 명성교회가 총회 의결을 뒤집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될 수도 없는, 가지 말아야 할 길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명성교회가 103회 총회 의결을 존중해 김하나 목사의 취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하고, “교회 내부에서 일시적 어려움·갈등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한국교회 전체로 볼 때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부흥도 일어나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다른 길은 명성교회가 세습방지법이 있는 예장통합 교단을 탈퇴하고 목회세습을 허용하는 타 교단 혹은 독립교회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 목사는 “교단으로도 손쉽이 크고 명성교회로서

도 적지 않은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봤다.

마지막으로 노 목사는 김동호 목사의 높은 뜻승의교회와 같은 방식으로 명성교회 분립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했다. 몇 개 교회로 분립해 그 가운데 하나를 김하나 목사가 맡는다는 것이다. 그는 “분립을 통한 새 교회 구성이 매개처 문제와 세습 문제 모두 해결할 것”이라 봤다.

한편 같은날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예장통합 103회 총회재판국은 명성교회 재심 여부를 아예 논의하지 않았다. 재판국 측은 이 건이 다루기 힘든 사안이어서 함부로 다룰 수 없었고, 때문에 기도하면서 다음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은식 기자



명성교회에 쓸린 눈

명성교회 불법세습을 반대해 앞선 ‘통합목회자연대’가 15일 ‘명성교회 불법세습에 관한 총회 결의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했다. 좌로부터 노치준 목사(광주양림교회), 조건호 장로(변호사, 소망교회)와 임희국 교수(장신대 역사신학). ⓒ 조은식 기자

밀려오는 동성애…건강한 성·생명 윤리는?

‘성과 생명 윤리 포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려

한국윤리재단·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살률을 꿈꾸는 나비행동·한국사회발전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성과 생명 윤리 포럼’이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12일 오전 10시부터 개최됐다. 기조발표로 먼저 김준명 연세의대 명예교수(김영재교)와 겹 전 대한에이즈학회 회장이 전했다. 그는 국내 에이즈 감염의 경감 경로라는 주제으로 강연했다.

김준명 교수는 자신과 함께 13명의 의대교수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 논문을 제시하며 강연을 전했다. 그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 HIV/AIDS 코호트’는 전국 21개 의과대학으로 구성된 다기관 연구연합체의 주관 하에 진행됐다”며 “18세 이상 HIV 감염인 총 조사 대상은 1,474명으로, 남자 1,377명 여자 97명이었다”고 밝혔다.

그가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HIV 감염 경로 조사 결과 동성 및 양성 간 성 접촉 886명, 이성 간 성 접촉 508명, 수혈 및 혈액제제에 의한 감염 5명, 무응답이 74명이었다. 이어 그는 “젊은 연령군으로 갈수록 동성 및 양성 간 성 접촉에 의한 비율은 더욱 증가됐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그는 “18~27세 젊은 연령군에 있어 동성 및 양성 간 성 접촉은 71.5%였고, 특히 18~19세의 경우는 92.9%로 급격히 증가됐다”고 강조했다. 하여, 그는 “단어 선택에 따라 예민한 반응이 나올 수 있어서, 동성애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동성 간 성 접촉이라 단어를 썼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그는 “지금 까지 정부는 정책에 있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객관적 의학 데이터를 가지고 에이즈에 있어 주된 감염 경로인 ‘동성 간 성 접촉’하는 단어에 대한 예방 정책을 실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전교훈 서울대 사법대 국민윤리학과 명예 교수가 ‘성에 대한 인간학적 고찰’을 전했다. 그는 “인간의 성은 인간의 전체성, 즉 인간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와 깊이 연관 돼 있는 고유의 존엄성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이 동물이 아니라는 것을 기초삼아, 실제 성도덕의 문란은 인간의 성욕을 생물학적 문제로 격하시키는 데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인간의 성욕이 동물과 다른 점은 동물은 발정기와 수태기가 정해져 있으며, 주위환경에 의존적이지만 인간의 성욕은 정신적으로 불안할 때나 천재지변 전쟁 중 일 때나, 육체적으로 병들었을 때도 성욕이 향진한다”며 “그래서 사회적 공동선을 지켜야만 효능을 발휘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가령 그는 “중상을 입은 외과환자의 수혈조차 거부하는 사이비 종교집단의 행위를 자기결정권에 의한 것이라고 우리는 용인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다만 그는 “자기 결정권의 긍정적인 측면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가령 좋아하고 싶어하는 호호(好惡)의 문제나 취미는 자기결정권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통사회에서는 이런 자기결정권의 긍정적인 측면까지도 타기(唾棄) 되었고, 세대 간 문화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비윤리적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는 것은 사회의 공동선을 무시하고 독선을 내세워온, 공동체적 유대를 해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영아 살인과 자살 같은 인간의 생사문제, 수간과 근친상간이나 동성결혼과 같은 윤리문제는 사회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인간의 생명권에 속하는 이슈는 임으로 자기결정권에 의해 행사될 수 없는 종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신학자 불트만을 인용하며, “근세학자 이후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할 때에 비극은 시작됐다”며 “자기 결정권의 남용은 불길처럼 현대의 죽음 문화를 초래했다”고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살할 권리나

동성애 동성호도 각각 신체적·성적 자기결정권에 의한 것인데, 본래 인간은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타인들과 더불어 생각하고 행동하는 존재로 구성됐다”며 “생명가치와 관련된 문제를 독자적인 자기결정권에 내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 곽혜원 뒤빙겐 대학 조직신학 박사 겸 21세기 교회와 신학 포럼 대표가 ‘글로벌 성혁명 시대의 젠더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라는 발제를 진행했다. 그는 “1·2차 대전을 지나 21세기는 부요하고 풍요로는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며 “그러나 21세기 문명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마냥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유대인 출신 세계적인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를 끌었다. 그는 “유발 하라리는 역사학자로서 세계적 지성임과 동시에 동성애자로 커밍아웃 했단다”며 “최상위 지식인 계층에 동성애가 만연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유발 하라리의 저서 ‘호모데우스’를 인용하며, 곽혜원 박사는 “21세기 문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방향으로 살 것인지 예견한 책”이라고 소개했다. 계속해서 그는 책 내용을 인용하며 “21세기를 사는 사람들은 인류가 당면한 오랜 기난과 참혹한 전쟁의 역사를 딛고 엄청난 번영을 구가하며 살고 있다”며 “그러나 죽음을 극복하고 마치 신처럼 영생불멸하며 나아가 성적쾌락을 영원토록 누리는데 관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그는 “현재 더 경악할 만한 일은 성별(sex)이라는 자연 질서를 철폐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남녀 성별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가족 질서 해체를 위해 사회·문화적 성인 젠더(gender) 곧 성을 스스로 선택하려는 포스트 모던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첫째로 젠더 페미니즘의 형성사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18세기 말엽 여성운동은 1789년 프랑스 혁명, 1917년 러시아 복세비카 혁명에 이은 21세기의 문제적 혁명이 될 수 있다”며 “생물학적 질서를 전복시킬 반신론적·무신론적 이데올로기와 더불어 하나님의 주권에 정면 도전하는 운동”이라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곽혜원 박사는 “초·중·고

의무교육에 필수 교과목인 성교육이 음란하고 노골적인 형태로 일어나고 있다”며 “성도덕이 왜곡되는 것은 결국 이혼의 급증, 이로 인한 가족공동체 분열, 정신적·심리적 상처, 성병의 만연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면 그는 “성차별 문제는 인류역사상 고질적 악행”이었다”며 “침략한 역사 속에서 여자는 수치와 굴욕을 받아왔다”고 전했다. 또 그는 “여기에서 치열하고 진정성 있는 문제제기가 있어야 한다”며 “오늘날의 성차별 문제가 개선됐지만, 한편으로 성차별 악습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그는 “성차별 문제해결 방식이 인류의 고귀하고 보편적인 가족질서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해결 되서는 안 된다”며 “‘레즈비언, 게이, 바이 세슈얼 등 젠더리즘과 결탁한 21세기 성 주류화 전략의 위세가 대단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그는 “성 주류화 전략이 자비 이데올로기를 차지하는 국가전략임에도, 그 실체는 은폐됐고 이는 민주사회에서 매우 기이한 현상”이라며 “성 주류화 정책이 대한 낙관적 전망을 마냥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그는 “성 주류화 운동의 정의는 여성이 사회의 주류 영역에 참여해 의사 결정권을 획득하는 운동인데 이는 절반의 진실”이라고 꼬집었다. 본질적으로 그는 “21세기 성 주류화 운동은 성차별의 근거인 남녀 성정체성(sex)을 해체하는 게 주요 목표이며, 나아가 가정 질서의 해체가 주된 목표”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88혁명 세대’ 중 최상교육을 받은 핵심 그룹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언론계 전반에 주도권을 걸め지고 있다”며 “UN 같은 유력한 국제기구들은 전통적 가치체계를 전복하고 성소주자를 대변하고 있는 권력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동성애를 동성 간 애정 행위, 성 도덕에만 치중해서는 안 된다”며 “이제 젠더리즘은 동성애에 합법화를 사회주의 혁명 투쟁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며 “전 세계 0·1프로만 동성 간 결혼을 하려 하는, 왜 굳이 결혼과 가족 제도를 파괴하기 위한 젠더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그는 폐퍼 바우하우스 뒤빙겐 대학 선교신학 교수의 말을 인용했다. 내용은 이렇다.

“죽음을 연구하는 신학자로서 존엄한 생명·건강한 가족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됐다”며 “가족적 유대관계는 삶과 죽음의 질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한국사회와의 심각한 혼란 중 하나는 자살 예방인데, 이를 위한 중요한 기제는 건강한 가족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라며 “동거동락 곧 아낌없이 나누는 가족 공동체는 최후의 정서적 안전망”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영한 송실태 초대기독대학원장이 축사를 전했다. 이어 기조발제에 민성길 연세의대 정신의학 명예교수, 이상원 총신대 기독교 윤리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종합토론 시간에는 한국윤리재단 운영위원장 겸 서울대 학원선교사 원요한 박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노형구 기자

구호단체들 잇달아 방북

미국의 대북 구호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과 유진밸 재단 등이 방북한다.

먼저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B형

간염 치료 등 대북 의료지원 사업을 위해 최근 약 한 달 간 북한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미국 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위치한

대북 구호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CFK)은 15일 지난 8월31일부터 9월 23일까지 이 단체 관계자 9명이 방북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전화통화에 전했다.

이 단체는 이번 방북을 통해 북한에서 의료품 및 식량이 제대로 전달, 분배됐는

지 확인했고, 결핵과 B형 간염 진료소의 북한 의료진을 훈련시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시설의 개보수 및 물 굽착 공사를 진행했고, 결핵과 B형 간염 치료를 위해 북한 보건성 관계자들과 만나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의 관계자는 대북 제재와 미국 정부의 미국인 북한 여

행금지 조치, 유엔의 승인 등 복잡해진 각종 행정절차로 인해 대북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진밸 재단도 16일 가을 정기 방북길에 올랐다고 밝혔다. ‘유진밸 재단은 대표단이 자신들 단체가 지원하는 다제 내성결핵센터들을 모두 방문해 북한 보건

성과의 협력 하에 의료진 및 기존 환자들을 만나고, 신환자를 등록시키며, 6개월 분의 다제내성결핵약 및 기타지원물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진밸 재단 방북단은 11월 평양을 떠나 돌아올 예정이라고 했다.

홍은혜 기자

“개혁을 넘어 변혁으로: 외부적 변혁”

한국복음주의협의회 10월 월례회, 감신대 구약학 왕대일 교수 발표

감신대 구약학
왕대일 교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여 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니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함과 같으니라(행 7:46-50)

1. 왜 변혁인가?

한국교회는 지금 교회성장시대이후를 맞이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지금 같은 위상을 지니게 된 데에는 교회를 개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며, 교회 건물을 신기록하면서, 교회를 선교공동체로 성장·부흥시킨 목회자들의 퍼땀 어린 혼신이 있었다. 한국교회 목사들만이 지녔던 열정과 영성, 지성과 현신, 비전과 예지(鏡智), 지도력과 경영능력 등이 한국교회로 하여금 한국사회를 대변하는 종교공동체로 우뚝 서게 하였다. 그랬던 한국교회가 지금 모진 겨울을 맞이하였다. 교회성장의 동력이 꺼진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를 꼽는다면 교회생태계가 어려워졌다라는 점이다. 그동안 한국교회 성장을 떠받친 사회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한국교회가 위축되는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국사회가 직면한 인구고령화와 저출산이 빚은 인구절벽 시대가 교인수의 절대 감소를 예측하게 한다. 국민소득의 증가와 반비례하여 찾아든 무(無)종교, 비(非)종교, 탈(脫)종교 현상은 청장년층의 인구들이 교회를 외면하는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나날이 전문화, 분업화, 기업화가 되는 NGO 단체의 활동도 한국교회의 내일을 어둡게 한다. 각각 NGO 단체들이 교회의 역할을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대신 처리하고 있다. 게다가 지금 한국사회는 낙시, 등산, 요가, 필라테스 등 각종 스포츠 현장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한국사회와의 전제 종교인구보다 많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교회성장시대를 과거형으로 기억하게 된 이유는 그 무엇보다도 교회내적인 문제에서 찾아야 한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여전히 크고 작은 여러 개체교회들이 교회성장시대에 앓았던 성장통(?)을 알고 있다는 점이다. 교회 안에서 비롯된 문제를 복합하기 급급하기에 한반도를 둘러싼 한국교회의 정치사회경제적인 지형도 고민하고 있는 데 거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그 뒷에 한국교회는 한국사회에 대중과 접점 더 떨어지는 현상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우리의 문제, 우리 안에 있는 문제, 우리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적극 치유하지 않고서는 한국교회의 기상도 나아질 수 없다.

미국 드루(Drew) 대학교의 교수 레너드 스위트(Leonard Sweet)가 10여 년 전 한국교회를 찾아와서 했던 강연은 지금도 내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당시 레너드 스위트는 교회의 역사를 4 M으로 정리하였다. Mission→Ministry→Maintenance→Museum.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좌표는 어디쯤인가? 아니, 한국교회의 내일은 어디쯤 위치할 것 같은가?

한국교회는 교회성장시대 이후 시대를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급변하는 교회생태계의 도전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교회성장을 이루지 말자는 소리가 아니라 교회성장시대이후를 준비하자는 것

이다. “against church growth”가 아니라 “beyond church growth”를 말하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달라져야 한다. 개혁(reformation)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개혁은 리모델링(remodelling)이다. 개혁이 아닌 변혁(transformation)을 이루어야 한다. 변혁은 탈바꿈이다. 어떻게 변혁해야 하는가? 한국교회가 개혁을 넘어 변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2.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교회변혁을 말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법고창신(法古創薪)이라 하지 않았는가. 이 글이 주목하는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 7:46-50이다. 교회의 첫 걸음을 성전종교의 대변혁이었던 것이다.

성전은 사람솜씨로 지었지만, 광야 교회, 곧 “증거의 증마”(스케네 투 마르튀리온, 행 7:44)은 하나님의 보여주신 양식대로 지은 것이다. 증거의 장막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에 나중에는 목자, 목사, 교사이었다. 그런 바탕에서 교회는 모이는 종교에서 흩어지고, 나뉘지고, 조개지는 공동체로 탈바꿈하였다. 교회의 첫 걸음은 성전종교의 대변혁이었던 것이다.

완성될 성전을 외쳤다. 그 내일의 성전이 있기에 오늘의 성전에 매여 있는 자들을 향해서 그것은 훈합주의의 온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꾸짖었다. 무엇을 외쳤는가? 사람이 만든 집보다도 하나님이 지으실 “처소”를 외쳤다. 이스라엘 신앙공동체가 광야 교회의 유산을, 하나님을 위한 처소라는 유산을 이어가지 않는다면, 그런 공동체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꾸짖었다.

그랬기에 이사야는 성전의 진정한 실체를 종말론적으로 조망하는 방식으로 당시의 성전종교가 거듭나기를 소망했고, 그랬기에 스테반은 그 종말론적 비전에 기대어 아예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고 설파(說破)하였다.

이사아나 스테반의 말은 단순한 설명(說)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존 성전종교를 깨뜨리는(破) 외침이었다. 신앙공동체는 처음부터 프로테스탄트(Protestant)였다던 것이다. 그러니 기억해야 한다.

교회는 유대성전종교를 깨뜨리는 변혁 공동체였다. 그 변혁공동체의 완성을 현실이 아닌 종말론의 지평에서 소망하였다. 그 날에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의 지평에서 오늘의 교회를 보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늘 ‘도상의 교회’(Church on the Way)가 되어야 한다. 스테반의 순교 이후 “길” 따라 “흩어진 사람들”(행 8:4)이 무너기로 쏟아지지 않

았던가!

5. 그렇다면 한국교회, 어떻게 변혁되어야 할까

오늘의 한국교회가 스테반의 외친 광야 교회에서, 이사야가 외쳤던 종말론적 성전에서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한국교회의 변혁을 향한 “타는 목마름”은 우리 모두에게 다 절실히 있다. 그 절실히를 한 두 마디로 다 거론할 수는 없다. 다만, 여기에서는 사도행전 7장과 이사야 66장에 근거해서 한국교회의 변혁을 향한 이정표를 제시해볼 뿐이다.

스테반의 예루살렘의 교회를 유대성전 종교로부터 떨어져나가게 했듯이 오늘의 한국교회, 그 규모가 대형교회든 개형교회든, 탈(脫)성전화, 탈(脫)성전종교화해야 한다. 교회의 존재양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소리다. 교회가 성전을 짓지만, 그 성전은 성전종교의 성전이어서는 안 된다. 교회는 흩어져야 하고, 각 지역사회나 분산된 각 계층에 세워지는 공동체이어야 한다.

요즈음 우리 교회에서 성전은 교회의 하부구조(집회장소)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주의해야 한다. 교회 안에 성전(예배당)이 있어서야 성전(성전종교) 속에 교회가 흡수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의 시작은 유대성전종교로부터 뛰쳐나온 프로테스탄트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다시 유대교식 성

전종교로 되돌아가버려서는 안 된다.

교회의 규모를 축소하자는 것이 아니다. 교회의 규모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마 25:14-30). 크게 자라는 나무도 있고 작게 자라는 나무도 있다. 다 주님이 키우시는 나무다. 단, 교회마다 자라서 교회끼리 더불어 숲을 이루어어야 한다. 사도행전에서 계시록으로 이어지는 신약의 말씀에서 교회는 서로 더불어 숲을 이루는 방식으로 퍼져나갔다. 예루살렘, 앤디옥, 예레소, 서머나, 베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케아,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카, 고린도, 로마 교회 식으로 당시 지구촌에 교회라는 숲을 이루어나갔다.

이 점이 중요하다. 한국교회가 숲을 이루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개체 교회들이 각각 약진하고 경쟁하는 방식으로 생존(?)했지만, 이제부터는 나무와 나무가 함께 하는, 큰 나무와 작은 나무가 공생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조립(造林) 방식으로 교회변혁을 설계하고 실행해야 한다. 큰 교회는 있어야 한다. 아니, 있게 된다. 지역사회나 계층공동체의 구조? 규모? 형태 등에 따라서 교회는 얼마든지 큰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형태로는 아니다. 큰 교회 안에 여러 공동체들이 연합하는 형태로 그 체계를 달리해야 하고, 교회의 자원을 주변의 다른 교회들과 공유하며 하나님 나라의 디아코니아를 함께 펼쳐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다.

단, 지금 모습으로는 아니다. 담임목사의 생계형 교회로서는 교회 역할을 할 수 없다. 큰 교회가 교회 안에 여러 공동체들을 연합체 형태로 두듯이 작은 교회도 작은 교회들끼리 연대하여 디아코니아를 공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스테반의 순교하는 자리에서 맛섰던 자들은 유대교의 바리새파 학자와 사두개파의 종교인들이었다. 스테반은, 그리고 스테반 이후에 등장하게 된 교회의 지도자들은, 역시 레너드 스윗의 표현으로 설명하면, 전도(mission) 형의 종교인들이었다. 무엇보다도 신앙공동체의 지도자가 달라져야 한다. 주목할 것은 다 같이 전도와 복음전파에 힘썼지만, 배울과 실라와 바나바와 베드로 등이 서로 다 달랐다는 것이다. 무슨 소리인가?

한국의 개신교회는 담임목사(당회장) 중심의 교회다. 이 체제를 존중하면서 변혁을 이루어야 한다면, 교회 안에 여러 명의 목사들이 공동으로 목회하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전도사, 강도사, 목사, 선교사만이 아닌 수도사 등도 같은 교회를 더불어 섬기는 목회생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고시(강도사고시)를 패스 했다고 해서 꼭 담임목사가 되어야 한다고 고집해서도 안 된다. 평생을 한 공동체에서 목사로 사역하다가 은

퇴하는 트랙도 마련되어야 한다. 회사에 들어간 사원들이 모두 다 나중에 그 회사의 CEO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숲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교회끼리 통폐합해야 한다. 시장의 용어로 말한다면, 구조조정이나 MOU를 해야 한다. 교회 수가 너무 많다. 목사후보생을 배출하는 신학교가 너무 난립되어 있다. 한 교회가 한 교회건물을 세우고 짓고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가 연대하여 함께 교회를 세우거나 교회건물을 짓고 공유하며 유지하는 형태로 존재방식을 혁신시켜야 한다. 그런 변혁을 위해 목회구조 마저도 공동목회 형태로 변환되어야 한다.

스테반의 설교에 인용되었던 포로후기 시대의 이사야는 종말론 신앙을 당시의 종교가 겪던 난관을 헤쳐 나가는 돌파구로 삼았다. 종말론 신앙이 무엇인가? 제도종교가 아닌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신앙이다. 그 “내일”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나”를 내려놓을 줄 알고, 비울 줄 아는 신앙이다. 한국교회의 변혁을 위해서는 신학교의 이런 방향으로 변혁되어야 한다. 신학생의 수사를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 교단신학교들이 구조조정은 말할 것도 없고 신학교육의 체제와 내용을 과감하게 혁신시켜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비롯한 개신교회의 신학교육은 지적 오리엔테이션(intellectual orientation) 중심이었다. 일정한 기간에,

일정한 과목을 이수하게 해서 목사가 되는 길에 들어설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다. 가르침 중심의 협행 신학교육은 넓게 보면 대학교육, 좁게 보면 직업교육이다. 직업교육이라면 졸업생들에게 하자가 발생될 경우 Recall이나 AS라도 해야 되는데, 협행 시스템으로는 그마저도 용이하지 않다. 이제는 지식을 가르치는 신학교육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양육되는 신학교육으로 변혁되어야 한다.

이사야가 종말론 신앙에서 현실의 갈등과 위기를 돌파했듯이 오늘의 한국교회도, 한국교회 지도자들도, 종말론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목회하는 목회자로 머물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성직자(목사)로 다시 조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오늘 한국교회가 레너드 스윗의 용어대로, 박물관(museum)으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다. 박물관은 기념관이다. 이대로 간다면 우리 한국교회도 기념관으로 그 위상이 추락할 수 있다.

다시 박물관시대→현상유지시대→목회시대→전도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애성(野性)을 영성의 본질로 채워야 한다. 그 여정에서 교회의 이미지가 부정적에서 모성적으로 변혁되어야 한다. 그럴 때 한국교회는 교회성장시대 이후에도 교회답게 자랄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이 심으시고 돌보시며 자라게 하신다. 나무는 겨울에도 자란다!

글: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제공

개혁을 넘어 변혁으로: 내부적 변혁”

한국복음주의협의회 10월 월례회,
할렐루야교회 김승욱 목사 발표

2017년도는 교회사에 역사적이었던 해였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 한국교회는 세계교회와 함께 다시 한 번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기를 사모하며 도모했다. 그러나 개혁을 넘어 변혁을 추구한다

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왜냐면 변혁이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영성이라고 믿기 때문이다(롬 12:1-2). Dallas Willard: “Spiritual formation... is the process of transformation... of the heart.”

오늘 발표를 통해서는 특히 교회 안에 서 필요한 변혁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교회의 변혁이란 곧 성도 각 개인의 변혁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교회가 변해야 성도가 변한다. 그리고 성도가 변해야 사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한다.

오늘 발표 내용은 마가복음 2장에서 일은 교훈들을 배경 삼아서 정리해 본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자. 우리 각자가 섬기고 있는 신앙 공동체의 경우, 무엇이 한 부대이고 무엇이 주님이 바라시는 새 부대의 모습일까? 이 교훈들을 가지고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모습들을 필자의 교회를 예를 들어서 마지막 부분에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다.

◆현 부대의 모습 1: 전통과 형식에 묶여 있는 종교
말씀의 배경: 주님께서는 한 중풍병자

를 고치시면서 그에게 죄 사함을 선언하셨다. 그러나 종교인들은 그것은 곧 신성 모독죄에 해당된다고 말한다(1-12절). 그 후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 그의 집에 거하시게 되는데, 종교인들은 주님께 왜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인가? 자신들이 못마땅함을 표현한다(13-17절). 또한 금식의 문제(18-22절)와 안식일 문제(23-28절)를 가지고 주님이 율법의 전통을 어긴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므로 자신들이 세워놓은 전통과 형식(프레임과 규정)으로 인해 주님 자신을 비판하며 소홀하고 마는 자들이 되어버린다.

도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하나님은 수차례 말씀하셨다.

◆현 부대의 모습 3: 기독권을 유지하려는 종교

말씀의 배경: 예수님이 사역을 모두 판단하고 나오는 자들은 누구였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 그 당시 종교와 사회적인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자신들의 자리가 위태해지는 것을 느꼈고, 그리하여 그의 말씀에 전혀 귀 기울일 수가 없는 자들이었다. 500년 전 종교개혁이 꼭 필요했던 이유도 그 당시 종교 리더들이 쥐고 있던 종교적/사회적/정치적 기득권으로 인해 생긴 부작용 때문이 아니었나? 그 당시 교회는 곁으로는 왕성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셨기 때문이다.

◆새 부대의 모습 1: 예수님을 주목하며 기뻐하는 믿음

말씀의 교훈: 마가복음 2장 전체의 흐름에서 명확하게 보이고 있는 교훈이다.

예수님은 사람 살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셨다.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자들을 세우시고 배고파하는 자들에게 안식일에 이삭을 주워 먹게 하셨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곧 모든 계명의 핵심이라는 것을 자신의 삶과 사역으로 보여주셨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마 9:13).

◆새 부대의 모습 3: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믿음

말씀의 교훈: 새 부대란 문자 그대로 새로운 부대를 뜻한다. 낡은 옷에 생베조각을 붙이지 않는 것처럼, 현 부대를 부분적으로 잘라서 그곳에 새 부대를 부분적으로 붙일 수 없는 것이다. 아예 새로워져야 한다. 이 일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어떻게 성인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고 질문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요 3:5-6). 하나님의 새 포도주는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진 부대에게 부어지는 것이다.

◆필자가 섬기고 있는 할렐루야 교회에서 실천하고 있는 몇 가지 일들:
- 장로 임기제
- 상담 센터 설립
- 뉴웨이브 예배 설립(담임목사와 교회가 청년 세대와 함께하며 함께 가기 위한 예배)
- 다른 교단과 다른 기독교 전통에서 배우려는 노력

글: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제공

www.kogas.or.kr

한국가스공사
KOREA GAS CORPORATION

바르게 딛는 안전의 첫걸음

굴착신고 및 사전협의는 굴착공사의 처음입니다

굴착공사에 의한 배관 손상사고로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굴착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굴착신고는 필수입니다.

굴착공사 신고번호
1644-0001

굴착공사 신고절차

- 굴착공사계획 신고 ◉ 접수번호 발급 ◉ 가스배관 및 굴착현장 표시 ◉ 굴착공사개시 통보 ◉ 굴착공사 시행
- * 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시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희망찬 미래 열어갈 계시록 해석이 타당해”

김명용 전 장신대 총장, 5회차 마지막 온신학 아카데미 강연



온신학 아카데미 김명용 전 장신대 총장

15일 오후 7시 천호동 광성교회에서 김명용 전 장신대 총장은 온신학회 5회차 마지막 강의를 전했다. 마지막 강의 주제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바른 해석과 바른 기독교 역사관이다.

그는 “요한계시록은 로마황제 도미시안의 박해기에 기록된 책으로서, 당시 소아시아 교회의 역사적 정황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며 그릇된 요한계시록 해석을 경계했다. 예로 그는 서답석의 저서 ‘현실로 나타나는 666’을 제시했다.

이 책을 지적하면서, 그는 “서답석은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언급된 짐승의 수 666은 컴퓨터라고 주장했다”며 “컴퓨터의 영자 스펠링은 알리바이 숫자로 환원해서 합침면 666이 된다는 것”이라 전했다. 김명용 목사가 전한 서답석 논리에 의하면, C=18, O=90, M=78, P=96, U=126, T=120, E=30, R=108이고 모두를 합하면 666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컴퓨터가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666인 셈이다.

김명용 목사는 “요한계시록 13장에 관한 말세론적 주장은 어느 정도 한국교회에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요한계시록의 말세론적 주장은 666이 바로 코드, 신용카드 속에서 숨어있고 이 바로

드 없이는 상품거래를 할 수 없는 시대가 오는데, 이는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도 못하게 하니라’라고 언급된 예언”이라 전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그는 “요한계시록은 유대인들의 묵시사에 속하는 책이며, 대부분의 묵시사들은 박해기에 기록된 책”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용, 짐승, 나팔, 뿐, 등 알기 힘든 언어들은 바로 이 박해와 깊은 연관이 있다”며 “이런 언어들은 모두 박해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한 위장 언어”라고 전했다.

결국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라며 “요한에 의해 로마 황제 도미시안은 명백히 사탄이었지만, 박해의 상황은 이를 직접적으로 서술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래서 그는 “요한계시록 13:1-2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는 내용은 바로 로마가 갖고 있는 권세는 마귀로부터 왔음을 말해준다”며 “유대 묵시사에서 용은 마귀, 짐승은 국가를 상징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당시 로마 황제는 황제 송배를 강요하는 척령을 반포했는데, 그 모든 것은 마귀로부터 나왔다”며 “요한은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는 마귀에게 속한 권세이므로 끝까지 저항해 승리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여, 그는 요한의 권면으로 요한계시록 2:10, 21:6-8을 예로 들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여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계 2:10) “승리하는자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마시게 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으로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 하는자, 믿음이 없는자, 우상숭배자, 살인자는 불타오르는 유황의 바다에 빠질 것이다”(계 21:6-8)

김명용 목사는 “계시록 13장 1-2절에 언급된 로마의 권세는 바울이 쓴 로마서 13장의 언급과 내용상 반대 되지만 상호 도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은 ‘정상적인 국가’, 즉 국가가

선을 장려하고 악한 자를 벌하여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정상적 법치국가를 전제로 끝 것”이라 전했다.

그러나 그는 “계시록 13장의 국가는 이미 악의 도구가 된 로마를 말하며, 로마는 우상숭배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은 이에 저항해야 함을 말했다”고 강조했다. 하여 그는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의 말을 기초로 독재 권력에 순종과 충성을 강요하는 부분은 전혀 성서적 정당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계시록의 666의 의미는 무엇일까? 김명용 목사는 “계시록 13장 18절에서 666은 도시가 아니라 사람을 상징하는 숫자이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사람을 바로 네로(NERON)로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에 의하면, 앞서 컴퓨터 스펠링을 아라비아 숫자로 환원한 것처럼, 황제 네로를 하브리어 숫자로 전환해 합하면 666이 된다고 한다. 하여 그는 “666은 오늘의 컴퓨터나 바코드와는 전혀 관계없는 오직 황제 네로를 상징하기 위해 일회적으로 쓰인 암호 숫자”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라는 표현은 666이 네로라는 것을 명백히 입증해 준다”고 설명했다. 왜냐면 “이는 당시 광배한 네로 환생설 때문에 나온 말이며, 네로는 악한자어서 다시 살아나 그리스도인들을 도륙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요한은 현재의 도미시안 황제가 환생한 네로와 같고, 무자비한 탄압과 황제숭배를 강요하는 적그리스도 666임을 드러냈다”고 그는 전했다.

그리면 요한계시록 13장 17절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김명용 목사는 바클레이(W.Barclay)연구를 인용하며, “향을 피우고 황제에게 경배하고 난 후에는 그것을 이행했다는 증거를 사람들에게 받았다”며 “이 증거가 바로 짐승의 표이며, 이는 박해와 죽음으로부터 면죄 받으며 로마제국 내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나아가 그는 “요한은 이 표를 결코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며 “왜냐면 신앙을 버리고 황제숭배를 하면 장래에 건설될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

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요한계시록은 말세론적 해석으로 컴퓨터, 바코드, 만국 통합화 폐를 말하는 게 아닌, 로마 황제 도미시안의 엄청난 박해 속에서 성도들에게 그 박해의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고 격려하기 위해 쓴 책”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이 책을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무시하고 해석하면 치명적 오류에 빠진다”며 “물론 계시록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지만, 말세에 대한 연대기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명용 목사는 휴거론, 7년 대환란 이론도 반박했다. 먼저 휴거론을 언급하며, 그는 “휴거론은 세대주의 종말론의 중심에 있다”고 못 박았다. 이어 그는 “예수의 지상 재림이 있기 7년 전 공중의 비밀 재림이 일어난다”며 “그러나 이 휴거론이 주장하는 예수의 두 번 재림은 성서 어느 곳에도 찾아 볼 수 없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그는 “휴거론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데살로니가전서 4:16-17을 제시하는데, 이 본문은 예수께서 마지막 재림의 날을 서술한 본문”이라며 “또 본문에 나온 죽은 자의 부활은 역사의 마지막 날에 일어나지, 결코 예수 재림 이전 7년 전에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라고 역설했다. 데살로니가 전서 4:16-17절은 이렇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들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살전4:16~17)

김명용 목사는 7년 대환란 이론에 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7년 대환란 시대는 세대주의 종말론의 중요한 특징”이라며 “역사의 마지막 7년 대환란은 마귀가 창궐해 온갖 흉악이 일어나는 암흑의 시대이며, 이는 역사를 어둡게 생각하도록 만들고 비판주의적 세계관을 형성시킨다”고 전했다. 다시 말해, 그는 “7년 대환란 이론은 성경에 없는 이론이기 때문에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에 그는 “결국 공중 휴거에 사람들이 집중했던 까닭은 7년 대환란을 피하려는 의도가 깊어 깔려 있다”며 “휴거해서 하나님의 어린양 훈민잔치에 참가하는 사람은 매우 복되지만, 휴거를 못하고 남아 7년 환란의 시기를 맞는 사람은 참담한 세월을 보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교회가 이런 세대주의 종말론을 갖게 되면, 역사를 변화시키려는 교회 활동은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왜냐면 그는 “7년 대환란은 결국 역사는 파국을 향해가고, 역사의 마지막에는 7년 대환란의 시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따라서, 그는 “역사에 대한 비판주의는 교회의 역사적 책임을 도외시 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교회는 세상 속에 정의를 세우기 위해 일하고,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행위는 큰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결국 그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교회의 과제와 7년 대환란은 공존하기 어렵게 된다”고 고집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세대주의 종말론은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 세상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을 길러내기 어렵다”며 “학교도 직장도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7년 대환란 이론은 성경에 없는 이론이기 때문에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에 김명용 목사는 7년 대환란 주의자들이 근거로 제시한 계 11:13, 계 12:14 절을 풀어 반박했다. 그는 “계 11:13의 ‘1260일’, 계 12:14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각각 3년 반으로 환산 된다”며 “이는 각각 다른 개념이지, 둘을 합해 7년 대환란 이론을 만든 것은 억지 논리”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계 12:14의 한 때, 두 때, 반 때는 구약의 다니엘서와 관련돼 있다”며 “다니엘서는 셀레우코스 제국 치하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4세) 시대에 쏘이졌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당시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는 유대인에게 히틀러와 비견될 박해의 상징적 인물”이라며 “그는 모세 율법을 읽는 것과 할례를 칠자리 금하고 이를 여기면 모두 죽였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당시 에피파네스의

박해로 혀가 잘려 죽은 자, 산 채로 기름 가마에 끌려 들어가 죽은 자, 온 가족이 기름 가마에서 죽은 자들이 많았고, 나아가 유대성전을 훼파하기 위해 유대인들이 더럽다고 여기는 데지 피를 뿌리는 박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그는 “이 처참한 박해가 3년 반 지속되다가 결국 마카비 형제의 저항으로 인해 유대는 승리하고 성전은 다시 정화됐다”며 결국 3년 반은 유대인의 가슴 속에 새겨진 상징적 기간이라고 강조했다. 즉 그는 “다니엘, 요한계시록 같은 유대 북서문학에서 3년 반은 마귀가 통치하는 상징적 기간”이라며 “다니엘의 3년 반은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 요한계시록의 3년 반은 도미시안의 박해를 상징한다”고 제시했다. 나아가 그는 “요한계시록에서 3년 반이 지나면 마귀의 통치는 끝나고, 그리스도의 통치는 1000년이나 지속될 것”이라며 “요한은 로마 권력이 온갖 박해를 할지라도, 세상의 참된 통치자인 주님과 7년 대환란은 공존하게 된다”고 고집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세대주의 종말론은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 세상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을 길러내기 어렵다”며 “학교도 직장도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시 말해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이 어둠 뒤에 없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참된 통치자는 주님이시고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뤄질 것을 희망하게 선호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재차 말했다.

끝으로 그는 “미국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나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는 미국에서 펼쳐진 요한계시록의 적용”이라며 “인종차별 속에서 미국의 국가 권리까지 킹 목사를 위협해도, 눈에 보이는 것은 마귀의 무리들 밖에 없다 할지라도 킹 목사는 꿈과 희망을 연설했다”고 얘기했다.

즉 그는 “킹 목사는 주님과 함께 오는 꿈과 희망 이었다”며 “마침내 미국에서 오바마라는 최초 흑인 대통령이 등장하는 꿈이 일어 난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의 박해받던 성도들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였지만, 이는 20세기, 21세기에도 울려 퍼지는 주님의 희망찬 메시지”라며 강연을 마무리 했다.

노형구 기자

“작은 자,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 돌려야 할 때”



서울신학대 미래신학교육포럼을 마치고. © 미래신학교육포럼 측 제공

새로운 신학교육의 방향 논하는 학술대회 서울신학대에서 개최

미래신학교육포럼 2018년도 추계학술대회가 15일 오후 1시부터 6시 까지 서울신학대학교 백주년 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제목은 ‘변화하는 세계와 신학교육의 미래’이다.

첫 번째 발제자로 임창호 박사(고신대 부총장)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신학교육 바뀌어야 한다”로 강연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 김정이 배제된 기술 간의 결합을 경계해야 하며, 공감이나 연대 같은 인간 고유의 능력을 감소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 지점에서 신학교육이 학문적 이론이나 형식, 교리, 교단정신에 치우쳐 그들만의 리그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이 핵심”이라며 “이를 실천하고 공감대를

경험하고 체울 수 있는 공동체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경건하고 민감한 영성훈련이 신학교육의 현장에서 필요하며,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뛰어 어울리는 가운데 신체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건강교육을 구현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그는 “학생들 간의 협력에 제고와 교수와 학생들 간 친밀한 교류 등, 기독교 공동체적 환경을 형성해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다 줄 어떠한 이익과 생산, 수월성 같은 혜택보다 비인간화(핸드폰, 컴퓨터, 게임기 등)의 차단과 개인적 유대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다면, 신학교육에 있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은 인간중심의 자세와, 인간성을 회복하도록 독려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슈밥은 4차 산업혁명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적응하고 따라가라고 했다”며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기 위해 어떻게든 교회, 노회, 종회, 한국교회, 교수들, 목사들 모두 처절하게 변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지 않았던가?”고 반문했다.

하여, 그는 “우리에게는 4차 산업혁명의 요란한 소리보다 교회를 뒤로하고 등을 돌리고 있는 수많은 작은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우리의 관심을 돌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래야 한국에서 교회의 잊었던 신뢰도 다시 찾아 올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마무리 했다.

이어 서울신학대 유재덕 교수는 ‘변화하는 세계와 새로운 신학교육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그는 “정보화 사회에서 신학교육은 효율성과 정당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며 “역설적으로 이는 신학교육의 시기에는 악한 자들이 승리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자들은 처참하게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시대”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목회지원자들이 목회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적 역할을 강조하다보니, 결국 신학교육은 성과지지와 부재와 지역 교회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학제적 있다”고 전했다.

결국 그는 “지나치게 개인 중심적이고 기계 중심적(핸드폰, 컴퓨터, 게임기 등)이며 만연한 때, 요즘 젊은이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교육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친밀해지는 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4차 산업혁명시대 선두주자인 슈밥은 기계, 컴퓨터, 문명의 도구보다 인간적 유대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다면, 신학교육에 있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은 인간중심의 자세와, 인간성을 회복하도록 독려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슈밥은 4차 산업혁명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적응하고 따라가라고 했다”며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기 위해 어떻게든 교회, 노회, 종회, 한국교회, 교수들, 목사들 모두 처절하게 변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반면 그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지나치게 성장지향주의에 익숙해져서 외적으로 그리고 많은 것을 지향했다”며 “작은 것들에 대해 소홀하는 경향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그는 “교회에서 조차 소외된 작은 자들 곧 소자들이 교회 문밖으로 떠나고 있다”며 “주님께서는 작은 소자하나를 솔직하게 하지 말라고 하

가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다양한 학문들을 단순히 모았다고 비판받는 현재의 파편화된 신학교육이 일관되고 통합적인 세계관을 제시할 수 있는 신학교육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학문간 협력을 강조하는 것과 더불어 새로운 신학분과들의 출현을 돋는 교육과정의 개편과 교육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과도한 전문화 목회자 중심의 신학교육 폐려다임을 극복하기 위해, 신학 교육은 다양한 학문과 적극적인 대화에 주력해야 한다”며 강연을 마무리 했다.

이날 발제자로는 문병구 박사(서울신학대학원 교수·신학대학원)가 신학대학원의 성서교육의 현실과 그 발전적 대안 모색”을 전했다. 지정 토론자에는 박삼경 박사(서울신학대학원 교수·기독교윤리학)가 맡았다. 이어 박상진 박사(장신대 대학원장·기독교교육학)는 “한국 신학교